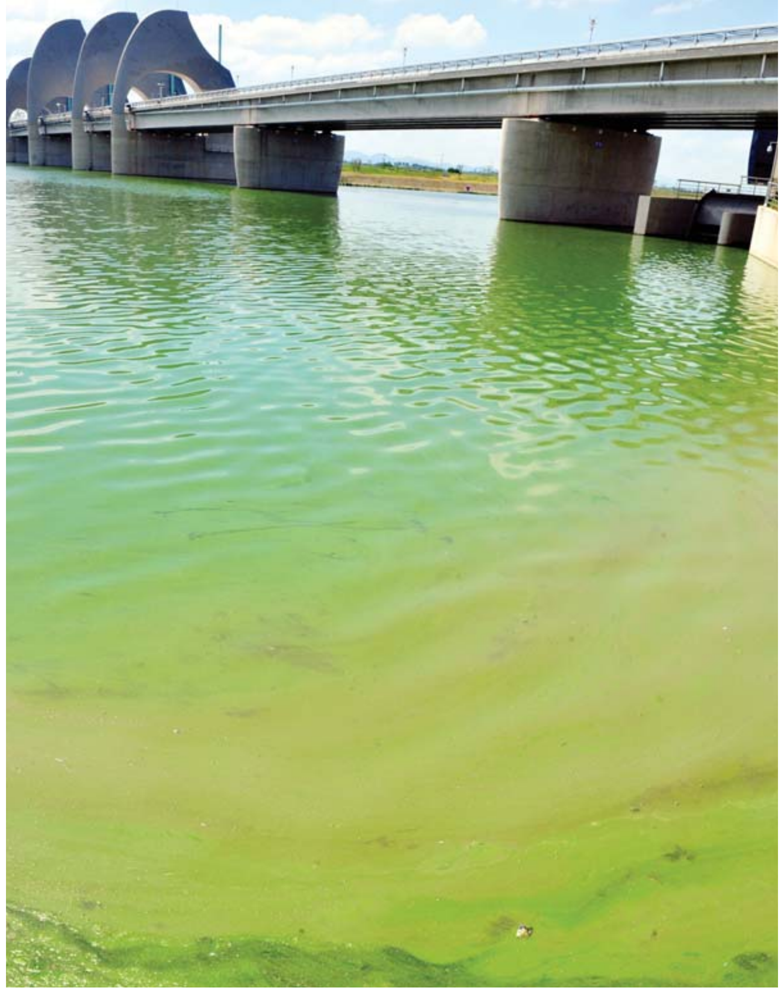
진실을 만나다 - 밀레
WWW.MILLET.CO.KR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2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광주 24/33℃ 목포 24/32℃ 여수 25/31℃

단기 4345년 (음력 6월 21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291호 1판 2012년 8월 8일 수요일



최근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면서 7일 오전 광주시 남구 승촌보 일대에 녹조현상이 나타나 물 색깔이 에메랄드빛으로 변했다. /김진수기자 jeans@

7일 오후 전남도수산과학원 연구원들이 여수시 돌산읍 두문포 앞에서 적조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

기록적 폭염속 하천·해양생태계 비상

영산강 뒤덮은 녹조

상수원 주암호·동복댐서도 녹조균 발견

영산강에 독소를 유발하는 남조류가 대량 증식하면서 녹조가 심각해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식수원에서도 녹조가 일부 관측돼 식수원 오염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영산강 승촌보 일대에 하천 수질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같은달 27일 '주의'단계로 격상시켰다. 이날까지 13일째 관심·주의 단계가 발효되고 있다.

이달 초 승촌보 일대의 클로로필-a 농도는 71.2㎎/㎥,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남조류 개체수는 37253/㎖로 측정됐다. 하천의 수질예보 발령 기준은 70㎎/㎥·500개/㎖으로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되며, 상수원은 15㎎/㎥·500개/㎖로 주의보-경보-대발생 3단계로 나뉜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승촌보와 죽산보 일대의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개체수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영산강청은 이 같은 날씨가 계속될 경우 녹조현상이 영산강 전체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상수원인 주암호와 동복댐 일부에서도 녹조균이 발견됐다. 최근 측정한 동복댐의 클로로필-a농도는 0.4~6.3㎎/㎥, 남조류 개체수는 150개/㎖이다. 주암호의 경우 남조류 개체수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클로로필-a농도는 1.4~7㎎/㎥로 검출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남해안 밀려든 적조

여수 양식어장 르포

어민들 초긴장…황토 준비·예찰 강화

"올해는 심상치 않습니다. 폭염으로 일조량이 증가해 수온이 높아진데다 태풍도 그냥 지나쳐 피해가 우려됩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지만 걱정입니다."

지난 4년간 적조 피해가 없었던 여수 앞바다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오후 여수 돌산 임포 동쪽 앞바다. 적조 예찰을 위해 출항한 전남 201호(20t·선장 이병후)는 먼바다로 갈수록 높아가는 파도에 요동쳤다.

"예찰선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4년 만에 적조주의보라 잔뜩 긴장하고 있죠. 더 이상 확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현장 지휘자 정임조 여수시 어업생산팀장은 적조상황을 점검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수시는 지난 5일 여수 화정면 개도 종단 해역에서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적보주의보 기준치인 300셀/㎖를 초과한 250~3960셀/㎖가 발견됨에 따라 적조 주의보를 확대 발령하고 지도·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아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진행상황을 일일이 양식어업인들에게 문자서비스로 실시간 제공하고 해양수산과학원 공무원들이 양식장을 돌며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또 적조가 심해질 경우에 대비해 화정면 개도, 야도 등 6개소에 3만9000여t의 황토도 준비해 놨다. 〈2면에 계속〉

/여수=김대성기자 bigkim@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남자 탁구 결승 진출…김덕현 세단뛰기 예선 탈락

관련기사 14·15면

한국 남자 탁구가 '베테랑의 힘'으로 은메달을 확보했다.

주세혁(31), 오상은(35), 유승민(30)으로 팀을 이룬 남자 탁구 대표팀이 6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의 엑셀 런던 노스아레나에서 열린 단체전 준결승에서 홍콩을 3-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2008 베이징올림픽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던 한국 남자팀은 8일 오후 11시30분 세계 최강 중국을 상대로 금메달에 도전한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이신바예바와 류상의 금메달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미녀새' 옐레나 이신바예바(러시아)는 6일 열린 육상 여자 장대높이뛰기 결승에서 동메달을 목에 거는 데 그쳤다.

한국 도약종목의 간판 김덕현(광주시청)도 7일 세단뛰기 예선에서 16m22를 뛰며 탈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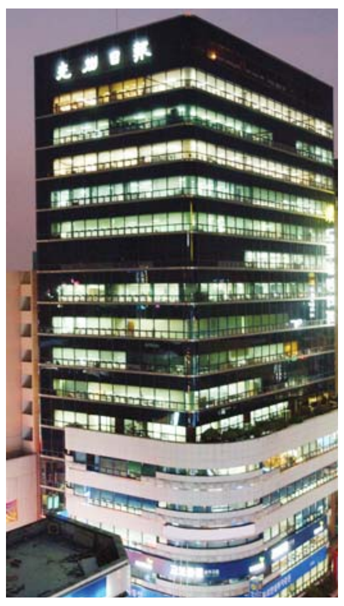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알림

光州日報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61기 수습기자 및 경력기자 모집

광주일보 창사60주년 since 1952



60년 역사의 호남 대표언론, 신뢰받는 신문 광주일보가 새 식구를 찾습니다.

신문·방송·모바일 등 미디어 융합시대를 맞아 창의적 사고력으로 저널리스트의 길을 함께 갈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긍지와 보람의 광주일보에서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모집대상

모집부문	전형방법	자격 및 대상
수습기자 ○명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석사학위 소지자는 1980년 이후)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
경력기자 ○명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종합일간지 경력 2년 이상인 자

〈공통〉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제출서류

수습기자	입사지원서 1부	광주일보 홈페이지 (www.kwangju.co.kr)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1장 이내
	외국어 성적증명서	TOEIC또는 TOEFL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성적증명서 포함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경력기자	수습기자 응시자 제출서류와 같음 본인 작성 기사 사본 5건	

전형일정

전형방법	일정	
입사지원서 접수	8월 1일(수)~24일(금)	방문 또는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8월 30일(목)	개별통보
필기시험	9월 2일(일)	국어, 상식, 논문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9월 3일(월)	개별통보
면접	9월 5일(수)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9월 7일(금)	광주일보 지면 및 개별통보

▶ 접수처 :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총무부 (우편접수는 8월 24일 소인분까지 유효)
▶ 필기시험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개별통보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1. 화인코리아는 사조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합법이라고 주장한 사조의 채권매입행위가 불법으로 드러나,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및 과징금(약2,000억원 추산) 부과 요청을 하였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화인코리아는 사조그룹과 사조그룹 관련사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8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애드원플러스는 신용평가 제외등급인 'R'등급으로 정상대출이 불가한 페이퍼 컴퍼니이며, 폐업한 PC방이 현주소인 사실상 "유령회사"입니다.

그런데도 사조그룹기획실, 사조인티그레이션, 사조오양, 사조시스템즈, 사조바이오피드 등은 애드원플러스(몰래 화인코리아 채권을 매입한 회사)에게 약188억4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대여하고, 각종 업무 및 인력,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지원해왔습니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사조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당지원행위에 따른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제24조 2항과 제70조에 의해 약 2,0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51조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조항도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애드원플러스가 불법으로 채권을 매입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해주시고, 사조그룹은 화인코리아가 법 절차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회생개시에 동의해 주십시오!

2. 의문의 교통사고-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화인코리아 최선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7월 23일 우연히도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인티그레이션에서 5Km정도 떨어진 지점(전북 김제)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조인티그레이션은 화인코리아의 적대적 M&A를 처음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분이 대표인 회사입니다.

-화인코리아 최선은 사조그룹 관련 업무를 처음부터 책임지고 추진해오면서 사조의 적대적 M&A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화인코리아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들이 계속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인코리아는 힘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교통사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애원합니다!

2012년 8월 8일
화인코리아 최 선